

## 영국의 시어터 러쉬(Theatre Rush)와 가난한 다수

글\_김준영(런던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 오로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무대의 승자 독식의 구조가 아주 부유한 극소수와 매우 가난한 다수의 연극인을 양산하지만 불행히도 개선책은 없어

얼마 전 영국의 한 기관(Weston Jerwood Creative Bursaries Scheme)에서 공연예술 전공자들의 수입 구조를 두고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다. 조사의 시작은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졸업생들이 얼마나 많은 무임금 노동을 해야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였다. 일단 영국 학생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평균 £27,000(4,000만 원)이상의 빚이 있고 거기에 약 £7,000(1,000만 원) 정도의 무임금 열정페이 기간을 의식처럼 거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 조사에 참여했던 영국 내 기관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유명한 소극장인 돈마(Donmar Warehouse)와 국제 규모의 축제 조직위원회, 극단, 오페라하우스 등이 포함되어 발표된 내용에 신뢰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시쳇말로 정리하면 교육기관이라는 온실에서 눈탱이 맞고 현장에서 환불은 커녕 오히려 빚을 통해 배운 재능을 강제로 기부해야 하니 애잔하다 못해 속연해 진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찾은 학생들의 60% 가량은 영국 최저 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15,000(2,200만 원)을 초봉으로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6월 13일 영국 정부를 통해 언론에 발표된 내용(Institute for Fiscal Studies)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학교를 떠난 지 5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임금조사에 예술 전공자들이 일반 학과 출신보다 약 15% 가량 “특별히 낮

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도 우리 공연 전공자들은 £20,000(3,000만 원)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임금 격차가 계속 이어지면 활동 기간 전체로 확장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번 조사 후 발표된 내용엔 구체적인 드라마 학교들도 언급이 되었는데 리버풀의 한 교육기관(Liverpool Institute for Performing Arts)은 졸업생들의 임금이 평균보다 40% 낮았고, 그 외 50% 이상 낮은 학교(Guild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Trinity College of Music)들이 포함되어 있어 입시를 앞둔 지원자들과 공개된 학교들 사이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올 2월 본지와도 인터뷰를 했던 공연평론가 린 가드너(Lyn Gardner)는 지난 18일 《더 스테이지(The Stage)》의 기고를 통해 “예술이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지 지갑을 부풀리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 샐러리 비교 따윈 무시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공연계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정부에서 돈을 써가며 위와 같은 식상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또 내용면에서도 크게 새롭지도 않다는 것이다. 간호사나 학교 선생님들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정해 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조사의 결론으로 학생들이 이후 더 좋은 환경에서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미래 안정된 직업과 연계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해 입시를 앞둔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뒤로하고 경쟁력(?)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연 중에 장려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1차 세계대전의 상의군인을 배경으로 펼쳐진 2018 <피터팬> 공연, 런던 리전트파크 야외 극장. Photo Johan Persson

실제로 영국에선 창의적인 예술부분이 교육부 정책으로 입시과목에서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글을 쓰고있는 시점(2018.6.19)에 세계 공연계 거장이며, 2018 토니상에서 공연계 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받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는 때마침 학교교육에서 음악과목의 비중이 점점 약해지는것에 대한 우려를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연극 예술은 우리의 눈, 귀, 그리고 마음을 다른 사람의 관점 즉, 다양한 입장에 놓이게 하는 힘이 있다. 당신은 환자를 대하는 데 전혀 동정심이 라곤 없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싶은가?”*

-리차드 에어(Richard Eyre), 전 영국 국립극장(NT) 예술감독

하지만 이러한 발표와 무관하게 여전히 영국의 젊은 연극인들은 교육기관이나 현장이나 지칠줄 모르고 뛰어들고 있다. 그 결과 런던의 화려한 공연 시장 뒤편엔 가난한 예술가들이 넘쳐난다. 이를 두고 얼마전 한국을 찾았던 네델란드의 화가이자 경제학자인 한스 애빙(Hans Abbing, 『Why Are Artists Poor?』 저자)은 이 기이한 현상을 ‘예술의 신화’로 설명했다. 예술을 현실과 동떨어진 초월적 존재로 신성시하고, 상업성은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 고통을 감수하고 내면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한참 철지난 신화. 이런

신화를 믿고 몰려드는 현상을 ‘아트러쉬(Art Rush)’로 표현하며 젊은 시절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해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다른 일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물론 돈으로만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연극인들의 만족도를 대신하지 못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낮은 임금과 힘든 현실 따위는 처음부터 공연계에 입문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늘 있어왔다. 영국에서 공연예술을 하는 연극인들도 직업과 삶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고자 함은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조사는 공연예술가들의 낮은 임금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예술과목을 피해야 한다는 정부 조사가 품고 있는 메시지이다.

영국도 오로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무대의 승자독식 구조가 아주 부유한 극소수와 매우 가난한 다수의 연극인을 양산한다. 이런 불행한 구조를 개선할 방법이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을 무작정 가르치는 영국의 연극학교들과 영국예술위원회(ACE)의 각종 지원정책은 이번 영국 정부의 발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구조적 문제점을 은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포기한다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